

第22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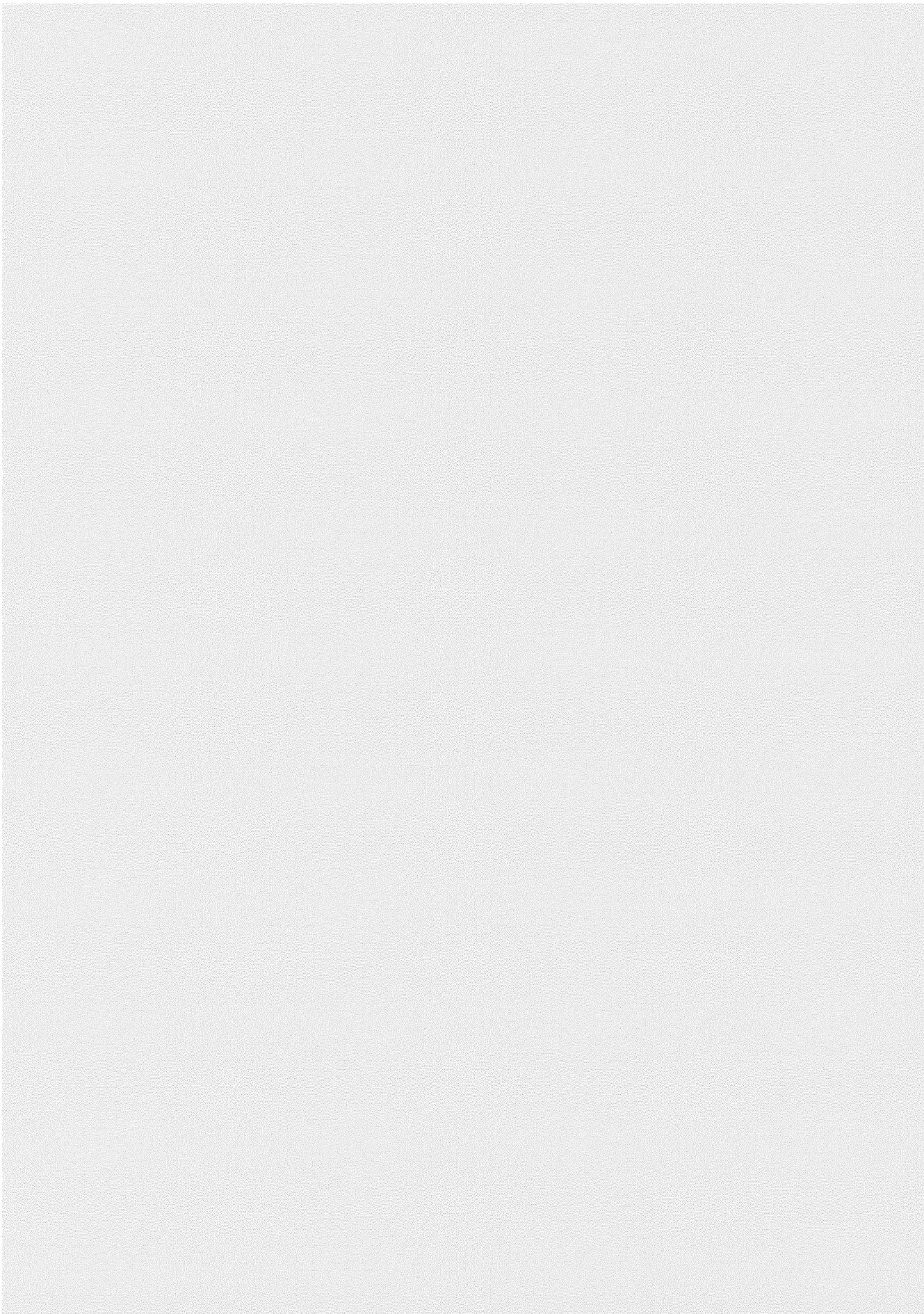
(2009.5.20. ~ 5.22.)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22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193
II. 제2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95
III. 제2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
IV. 제2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29
V. 부 록	
1. 의사일정안	263
2. 2009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65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9년 5월 20일 (수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229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곽종수)

(11시 00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
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곽종수

지금부터 제2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11시 02분 폐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9년 5월 20일 (수) 11시 02분

議事日程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29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9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229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수웅 위원 외 5인 발의)
4. 2009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11시 02분 개의)

● 의사과장 김길흠

● 의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과장 김길흠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와 안건접수 상황 및
그리고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경과보고

2009년 5월 12일 서수웅 교육위원 외 5
인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
칙 제2조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
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행
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임시회 집회를

● 의장 박정수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상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
니다.

[제229회-제1차 본회의]

요구하였습니다.

2009년 5월 13일 제2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같은 날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9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8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 안건에 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8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이송한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도 5월 15일 제28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2009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 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정수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29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5분)

● 의장 박정수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

정합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및 2009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5월 21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 시겠으며 5월 22일 10시 30분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처리하고 집행청으로부터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 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2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

구의건

(11시 06분)

● 의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서수웅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웅 위원

서수웅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 위원 외 5인의 교육위원께서 발의한 것으로 제안 이유는 제2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중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고 교육에 관한 주민을 대표하는 교육위원회의 의사를 교육시책에 반영토록하고자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며 출석 일시는 제2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5월 21일 오전 10시와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5월 22일 오전 10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교육감 및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보조 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관계 공무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정수

서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서수웅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즉시 집행청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9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09분)

● 의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제229회-제1차 본회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2009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본청 청사 증축 부지 추가 매입을 위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4,159㎡의 토지매입을 추진하던 중 1,934㎡에 대한 추가 매입 수요가 발생하여 총 6,093㎡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입에 따른 총 소요액은 21억 2,934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기 확보한 18억 7,155만원과 기타 토지매입비 집행 잔액 2억 5,779만원으로 충당하여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2009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별첨 2)

(끝에 실음)

● 의장 박정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9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현장방문과 사

전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하신 후에 제3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이상일 위원님과 정무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곽정수, 부의장 김부웅,
위원 김병우, 서수웅, 성영용,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우승구, 교육국장 전재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중등교육과장 이수철,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종찬, 총무과장 서재문, 기획관리과장 홍준기,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재무과장 박노화,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2009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별첨 2)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9년 5월 21일 (목) 10시 00분

議事日程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附議된 案件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걱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우승구 부교육감께서는 전국 시·도부교육감협의회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 의장 걱정수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육행정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는 의석순으로 하되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23조에서 2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하시는 내용은 가능한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의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9회-제2차 본회의]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5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우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첫 질의자입니다만은 제한된 시간에 비해서 질의 내용이 적지 않은 관계로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의 하나인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의 연구 기능 회복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구원의 연혁을 보면 1969년도 도 조례 제314호에 의거 종래 있어 오던 충청북도교육연구소와 충청북도시청각교육원을 폐지하고 충청북도교육연구원을 설립한 것이 그 전신(前身)입니다.

그 후 5년 뒤인 1974년 국가적인 과학 교육 진흥책에 따라서 다시 충청북도학생과학관을 별도 기관으로 설립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25년간을 두 기관이 양립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도에 도 조례 2429호의 근거 조례를 제정해서 양 기관을 재통합하고 현재의 자리에 신축 이전해서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이라는 기관 명칭 하에 지금까지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 연구원은 교육연구와 과학 교육 전담 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 기능에 더하여 영재교육과 진로지도 업무가 부가되었고 2002년도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역할이 더해진 데다가 2005년도에는 사이버가정학습지원체제 구축 업무까지 부가되어서 결국은 교육정보원의 기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의 위상과 주 기능이 모호해지고 특히 연구원 본연의 연구 기능은 아예 퇴색되어 버린 정도를 넘어서 연구원에 연구가 없다는 비판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연구관직으로 보임되는 원장 아래 기획연구부가 편제되어 있고 그 부서에 연구학교 지도, 또 특별연구교사제 운영, 교육연구조사, 교육평가 도구 개발 및 보급, 교육일반시책 연구, 교육연구회 개최 등의 관련 업무가 주어져 있기는 하지만 최근 몇 년의 주요업무계획서에 나타나듯이 거의 모든 업무가 행사 위주의 사업들입니다.

머리를 써야 할 기관이 손발 쓰는 일에 매여 있는 꼴입니다.

교육연구관이나 연구사라면 교육계의 브레인들이고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런 인재들에게 행사나 추진하게 한다면 연구원에 연구가 없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연구 없는 연구원의 단적인 징표는 연구원이 낸 “충북교육연구”라는 기관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작년 말에 발간한 2008년호 “충북교육연구”지의 예만 보더라도 내부 필자의 글은 원장의 권두언 단 한편입니다.

특별기고나 기획논단은 전원 대학교수나 외부의 타 연구소 연구원들이고 현장 리포트 조차 몇 명의 일선교사들일 뿐입니다.

도단체 연구원 내의 4명의 연구관과 12명의 연구사들은 1년간 연구 말고 뭘 했다는 말입니까? 외부 필자에게 원고 청탁해서 편집이나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분들의 연구 역량을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분들의 연구역량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소중한 인재들이고 또 그분들 외에도 우리 충북 교원들 중에는 대학교수들 못잖은 연구역량을 지닌 석박사급 인재들도 즐비합니다.

그분들의 연구 역량은 우리 충북교육계의 자산입니다. 충분히 갖고닥도록 해서 잘 활용해야 합니다.

교육연구원에 연구가 없으면 충북교육은 머리는 없고 몸통과 팔다리만 있는 꼴이 됩니다.

중앙정부의 정치권이나 행정조직에서 성안되는 정책들도 검증기관인 교육개발

원과 교육평가원 같은 기구들의 연구와 검토를 거치듯이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지역교육 현안들에 대한 연구와 검증기관도 필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또 연구원의 뿌리가 교육연구소였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라건대는 도내 유·초·중등 소속 석박사급 연구 인력들이 대학 강단이나 전문 연구소로의 진출 유혹을 받지 않고 초·중등 보통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통해 헌신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원을 독립 직속기관화하여 연구전문 교원들로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기관 방문 시에 당해 기관에 제언한 바도 있지만 결국은 교육감님의 의지와 결단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본청 차원에서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육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에 대한 의향을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택을 모신 단재 신채호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단재문화예술제전이 14년째 민간 주도로 치러져 오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14년 전 단재 선생의 동상이 1만여 명이 넘는 도민 성금으로 세워진 후 국내에서 유례가 없던 민간주도 애국

[제229회-제2차 본회의]

지사 동상건립의 뜻을 잇고 단재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기획되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이 재정 지원을 맡고 행사 기획과 진행은 민간 추진위가 주도하는 형식으로 시작된 민간 주도 관 행사에 해당하는 도민 문화축제입니다.

올해도 도비 2,000만원에 청주시가 1,700만원, 청원군이 1,000만원, 지역보훈지청이 300만원을 지원하고 참여자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특히 학생들이 참여하는 퀴즈대회 그리고 역사기행, 문화공연 같은 교육적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 교육청이 필히 행·재정 지원을 해야 마땅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단재 선생은 우리 교육청이 이미 20여 년 전에 선생의 호를 따서 교육연수원 명칭으로 삼을 만큼 도민의 사표요 교육적 모델로 모시는 점도 있기 때문에 더욱 동참의 의미가 있고도 남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이 그 행사에 함께 해 오지 못한 것은 초창기에 당시 교육감의 불미스러운 일이 추상같은 단재정신에 누가 된다고 여긴 주최측에 의해서 참여가 거절되어서 비롯되었던 것인데 그 상황이 그 이후까지 지속되어 온 것은 서로

에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현 교육감님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주최측도 흔쾌하게 초대하고 또 참여도 청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행사 때에는 교육감님께서 주빈으로 참석하셔서 큰 환영을 받으신 바도 있습니다.

하기에 도 단위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이나 위신 면으로 봐도 결코 외면하지 못할 행사로 여겨져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검토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개발의 의지를 가진 관과 자연보호를 요구하는 민의 갈등이 극적으로 타협해서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냈던 원흥이 지구에는 그 상징처럼 두꺼비 생태문화관이 개관하여 올 봄부터 체계적이고 알찬 생태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사례는 이미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서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으로부터 학생들과 답사객들이 몰려들어서 금년 2월 개관 후에 3~4월 중에 이미 7,500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운영 예산은 청주시 지원의 5,000만원이 전부여서 관리비용을 제하고 나면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안내요원들의 봉사에 의존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수질관리나 기타 양서류 생태 연구 등의 연구용역을 금강유역환경청 등의 외부

기관에서 위탁하기도 하고 청주시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일부 프로그램을 지원도 하고 있으나 답사객의 절대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지역 유·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들은 봉사자들의 헌신에 의존하면서 지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근 한국내셔널트러스트라는 공익 법인은 이곳만은 꼭 지키자는 운동의 일환으로 원흥이 두꺼비 서식지 보존사업에 동참해 구룡산 땅 한 평 사기에 6,000만원을 쾌척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운동에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작년에 한 분당 5만원씩 성금에 동참하는 미담도 만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교육청이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만이라도 재정지원에 나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긴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업 역시 앞으로 매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금년 지원분도 추경이나 예비비 등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남북누리나눔의 청소년 평화 리더십 캠프에도 일정액의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보수 및 진보 성

향의 통일운동 단체들을 망라한 이 단체의 해당 프로그램 역시 학교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을 보완하는 알찬 프로그램들로 듣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질의입니다.

국가 예산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워면서도 긴요한 공공시설을 민간자본 유치로 앞당겨 짓고자 한 데 목적을 둔 BTL사업이 2005년부터 시행되어 우리 지역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첫 해인 2005년도에 산남고 등 6개 학교 신설에 총 450여 억원, 그리고 2006년도엔 서현초 등 4개교 신설 및 이전과 20개교의 다목적 교실 확충에 총 577억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직지초 등 4개교의 신설과 20개교의 다목적교실 등의 신축에 627억여 원 규모의 사업이 시행되어 지금까지 3개년 간 총 54개교의 시설 확충에 1,655억여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영국과 일본 사례를 참고로 해서 시중의 유동자금을 공공시설 확충에 끌어들이으로써 시설개선과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등의 다목적 효과를 꾀한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제229회-제2차 본회의]

그런데 그것이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의 여파로 일부 시·도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들의 파산에 따른 사업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 특히 최근 인천에서는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나 문제점은 없는지 본 위원 역시 우려해서 사업별 성과요구수준서와 완공한 사업들의 성과점검표, 그리고 성과평가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 받아서 확인해 보았으며 일부 학교 관계자들에게 직접 탐문도 하여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일부 소소한 하자나 불편 말고는 심각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말의 안도를 가지면서 그 동안 관련 업무에 애써 주신 실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챙겨가야 할 텐데 끝까지 소기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에서 야기된 문제가 정말로 없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주시고 사업별 적격성 조사나 예비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했는지도 근거자료를 포함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번들 별 성과평가위원회 구성내역을 사업시행자 비율을 포함해서 알

려주시고 금융위기에 따른 사업자의 고충은 없는지, 있을 시에는 그 보전책을 강구한 바가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운영상의 애로 등 BTL사업의 문제점도 확인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8년 이후에는 BTL 신규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 급식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금번 질의를 위해 본 위원이 해당과에 일선학교의 석식 실태 등 만만찮은 자료파악을 주문했었는데 제출시한 연장의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충실한 실태파악을 위해서 애써주신 담당 실무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 자체로 알고 싶은 점들이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줄일까 합니다.

다만 벽지학교의 경우에 급식비가 거의 전액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서 지원이 축소되는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유아교육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난 번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추진해 가던 유아교육원의 설립이 도의회 심의에서 부결됨으로써 중단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후 재추진 의지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남유치원과 같은 단설유치원의 설립이 신설 아파트 단지에 계속 이어질 경우에 여건이 열악한 소외지역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인근 사립유치원들의 존립 기반까지 위협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 중산층 이상이 입주하는 신설 아파트 단지에는 더 이상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중단하고 기존 단설유치원의 경우 취원 경쟁률이 높을 시에는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자녀의 우선 취원을 보장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체험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현 성화동 유치원 건립 예정부지에 설립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퇴임 교사들의 복지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교원들의 정년퇴임 시기를 학기별로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명예퇴임의 경우에는 개인사정에 따른 의원면직이나 일반퇴직처럼 그 시기를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특히 후진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명예퇴임의 경우 그 명예에 어울릴만한 예우 면에서도 신청과 퇴임의 시기를 개인의 필요에 맡기는 것이 온당치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현재 정년퇴임하는 교사들의 경우에는 해당 교사들이 원하여 신청하면 퇴임 전에 3개월의 사회적응 연수가 주어지게 되어 있고 일부 활용하는 교사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를 잘 몰라 활용치 못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이어서 사문화된 조항이나 다름없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의원면직 등에 일반퇴직이나 명예퇴임의 경우에는 이런 복지혜택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교원사기양양 혹은 복지확대 차원에서 명퇴는 물론 일반퇴직 시에도 정년퇴임과 동일한 3개월의 교육공로연수 또는 자가연수를 권장 또는 보장할 의향은 없으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 교과부의 일률적인 5% 정원 감축으로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이

[제229회-제2차 본회의]

대폭 감축되었고 그 대부분이 일선학교 위주로 감축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34학급 이상의 중·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증원되거나 정원의 변동이 없는데 반해서 소규모 초·중학교의 경우는 정원 감축으로 행정직과 기능직 1인이 근무하게 되는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서 소규모 초·중학교는 학교운영에 적잖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이 감축되는 대부분의 직렬이 사무원 및 조무원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이러한 정원 감축으로 업무공백과 근무환경 악화가 초래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과부의 정원감축으로 2012년도까지 퇴직하는 지방공무원을 일반직 37명, 기능직 115명으로 예측하고 이를 감안해서 정원을 감축하였는데 그렇다면 2012년까지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계획은 없는지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의 경우에 지금까지 연고지 근무가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원감축 인원의 기준인 퇴직 예상 인원을 보면 각 지역교육청별 퇴직 인원과 정원감축 인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인력을 조정할 계획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광정수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조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김부웅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김병우 위원님께서 인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드리지요.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청 간부 여러분!

어정쩡하게 쏟아지는 교과부의 잦은 시책변화, 또 충북교육의 많은 현안들, 교육수요자의 그 많은 요구 등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경영을 하시면서도 전국 교육수준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현장을 바라보면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간부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도 금년 봄에 학력문제의 설부른 교과부 발표로 도민들이 걱정할 때 교

육감님께서 발빠르게 대 도민 사과를 해주신 것은 대단히 현명한 처리였다고 말씀드리며 그 어느 때보다도 탄탄한 집행청의 간부 조직이라는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이제 교육행정의 원숙기에 접어든 교육감님께 교육가족들의 큰 기대를 전하며 현장에서 교원, 일반직,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을 접촉하며 귀담아 들었던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인사문제입니다

먼저 교원의 정기이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2월 15일 이후에나 발령이 나기 때문에 학년말 정리에 바쁘다 보면 2월을 썩은 달이라고 일선에서는 말하기도 합니다.

해서 1월말쯤 또는 2월초에 발령을 하고 학년말 휴업부터는 이동된 교사들은 새 학교에 부임해서, 또 학교에 남아있던 교사들은 새 학년을 위해서 모두가 준비하며 3월 2일부터는 정상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관리자는 어렵겠지만 교사들만이라도 조기 발령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는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현재 운용되고 있는 인사 규정에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특수교사 등의 전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초·중등교사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점도 있는데 이제는 소수 직렬의 교원들도 별항에 전보 규정으로 취급해서 전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 담임교사의 학기중 이동 발령을 최소한으로 억제해 달라고 몇 번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학기중 발령이나 9월 중간이동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1년에 담임교사가 몇 번씩 바뀌는 교육환경이 바뀌는 그래서 기간제 교사 활용 이런 것들이 참으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대도시에 결원이 생겨도 기간제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신규 교사를 발령을 해서 담임교사가 바뀌는 것을 최소로 억제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는데 교육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기중 교사의 연수문제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인데 3일 또는 5일, 10일씩 되는 여러 과정의 일반 연수를 단재교육원이나 외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학기중에 시행되기 때문에 수업결손이 우려되고 또 그 결손을 최소화하려고 임시 시간 강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충실한 수업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나마 며칠짜리 강사는 농촌지역에서는 정말 구하기조차 힘들습니다.

[제229회-제2차 본회의]

해서 연수를 휴가중에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수교육 문제입니다.

특수교육 행정을 다루는 전문직에 전공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1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특수전공 교사들에게도 전문직 시험의 응시기회를 열어 주어 특수교육 행정을 맡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 유아교육 문제입니다.

유치원과 급식소 사이에 비막이 통로가 없어서 곤란을 겪는 유치원이 도내에 51개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 100미터 이상, 길게는 250미터를 3살, 4살 아이들이 비오는 날이나 눈오는 날 점심을 먹으러 이동을 해야하는 불편을 겪는 곳이 청주에 서원 등 4개원, 충주의 남한강, 대림, 제천의 의림, 청원의 옥산, 영동의 양강, 진천 만송, 괴산의 소수, 음성의 수봉, 무극 등 14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모든 곳을 제가 직접 현장 실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중 무극의 경우는 찾길을 건너서 150미터를 가야 되는데 비오는 날은 사고발생이 우려되어서 조마조마하게 현장을 봐야 했습니다.

수봉은 200미터 이상, 진천 만송은 240여 미터를 제 키만한 우산을 썼다기보다

는 질질 끌면서 밥 먹으러 가는데 그 유아들의 애처로운 모습을 잠시 상상해 보시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한꺼번에 해결은 어렵겠습니다만 열악한 곳의 정도를 확실히 파악해서 개선 계획이라도 세워놓고 현장에 알림으로써 교육감님의 유아 사랑 뜻을 전해줄 용의는 없는지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치원 교사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줘야 할 현장의 과제를 들어보니까 종일반 운영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각 시·군이 비슷한 의견인데 종일반 운영이 전용실이 없는 상태에서 오전반 교실에서 운영되는 관계로 필수 조건인 수면실이나 유희실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해 오전반 교사는 교실 정리와 다음날 수업 준비를 위해서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등 큰 애로를 겪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종일반 교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고 개선해줄 용의는 없는지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수교육문제입니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27조에 의한 특수학급 설치기준에는 초·중등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초과하면 학급 증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담초 현양원에는 11명의 중증 장애아동을 수용하고 있고 서경중에는 11명으로 그 중에

는 행동이 과격한 아이가 있어서 학급운영이 크게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으며 서원고에는 12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인문계 학교의 특성상 일반학급 수용이 거의 불가능하여 하루종일 특수반 학급운영을 해야 하는 등 보조원이 배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교사 1인에게는 벽찬 지도환경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급 증설 등 해소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일선 학교에 보내지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의 사용 문제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에도 짚어보았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중앙으로부터 도교육청으로부터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이 그야말로 쏟아져 오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반 운영, 00학교 사랑방 운영, 마을 사랑방운영, 대학생 멘토링반 운영, 원어민외국어교육반 운영, 지자체나 종교단체 운영 협조 등 예산은 써야겠고 학생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반편성을 해야 하는 담당자는 아주 죽을 맛이라는 현장의 소리를 전해드렸는데 아직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한 기초학력 부진아를 100% 구제하라는 과제를 부여받았지만 아이는 학원에 등록했기 때문에 학원으로 내빼는 바람에 학교에서 지도하겠다고 사정사정해도 돌아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일선학교 담당자들이 정신줄 차리게 합시다.

예산낭비도 우려되고 너무 많은 시책이 한꺼번에 남발되어서 오히려 부작용마저 우려되는 게 현장의 실태인데. 그래서 일선학교의 업무과중은 물론 아이들의 흥미 감소 현상마저 불러오는 그야말로 시책 공해라고 할만큼 심각히 본인은 우려되는데 이의 개선을 위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사업의 검토를 해가지고 일선의 사정에 비추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국장님과 관리국장님의 견해를 절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원업무의 경감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안착된 분위기에서 차분하게 학력을 제고해가는 일선의 풍토 조성을 위해 교육청 자체 행사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규교사나 전보교사는 3월 2일에 부임해서 낯선 학교에 적응해야 하고 남아 있던 교사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3월은 교실 정리 기간으로 분주하게 보냅니다. 4월은 각종 과학행사, 5월은 가정의 달 운동회 등으로, 6월은 호국 안보 관련 행사로, 여기에 각

[제229회-제2차 본회의]

급 지방자치단체나 유관 기관, 사회단체 등의 행사에 협조해야 되니 어수선한 가운데 1학기가 다 갑니다.

이런 학교의 분위기보다는 안착된 분위기에서 학력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체 행사만이라도 통폐합하여 줄이는 방안과 타 기관 행사에 협조하는 갖가지 행사를 통제해서 일선의 업무를 경감해 주시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육국장님 어떠신지요?

다음, 체계화되고 현장에서 정착 단계에 들어선 나이스의 데이터베이스를 극대화하고 편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일선의 사무량을 줄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도 인사기록카드를 수기로 보완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정기 호봉승급 등 나이스로 처리 가능한 업무를 매월 보고 업무로 처리하고 있으니 변동사항이나 입력하면 될 것을, 업무경감을 실천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서서 김병우 위원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으로 짚어 보셨던 BTL사업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보고 실제 운영중인 몇 군데 사업장을 둘러보았습니다만 서울 등 대도시에서 부실과 비리로 크게 보도되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는 관

계공무원들의 철저한 공사감독과 사후관리로 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을 교육감님께서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각급 유관단체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도 김병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걱정수

김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수용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용 위원

서수용 교육위원입니다.

곧바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촌 연중 돌봄학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도 연중 돌봄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8개 지역 44개 학교 4,703명을 대상으로 31억 26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농산촌의 학생 감소 및 학교의 소규모화에 따른 악화되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촌 지역 학교의 특성과 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학교 자율로 추진하여 농산촌

학생의 기초보장과 학업성취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교통, 급식, 건강 등 기본생활 안전망도 구축 운영하며 특기·적성 개발, 사회적 문화적 역량 증진, 심리적 안정 및 정서발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연중 돌봄학교의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습력 증진을 우선하는 교육복지가 충족되는 환경여건 개선이나 연중 돌봄학교의 내실을 기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대상 학교마다 지역이나 학교 또는 구성원들의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운영하는 영역이나 사업별 사업비 비율면에서 살펴보면 전체 예산 대비 학습 분야 사업비 비율이 17.6%에서 73.8%까지 62%의 학교별 격차가 나타나고 문화체험 사업비 비율도 10.8%를 적용하는 학교에서부터 75.3%까지 투자해서 64.5%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돌봄학교 운영 내용을 지역별 학교별로 사전협의나 지도를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건지, 또 문화체험이 사치성이나 예산집행을 위한 낭비성 행사는 없었는지, 한정된 지역을 인위적으로 묶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전 지역의 실질적인 대상 학교나 학생을 골라 보고 지원하여 그 결과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없

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문한 이외에도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또 그에 대한 시정 대안이 있었으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는데요 앞서 김병우 위원과 중복되는 내용을 피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의 주요 업무영역 및 조직 부서는 기획연구부 및 교육영재부서가 통합된 교육연구 영역과 과학교육 및 과학 관련 행사를 주관하는 과학교육부, 각종 교육 관련 정보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지원부 등 3개 영역의 부서로 조직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천과 울산광역시 그리고 우리 교육청을 제외한 타 시·도의 경우는 이미 6개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정보원과 교육과학연구원으로, 그 외 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연구정보원과 과학교육원으로 독립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업무의 차별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우리 도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타 시·도의 교육청을 참고해서 우리 교육청도 2개원 정도로 독립시켜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미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그 방안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으뜸교사 선발제도와 관련하여

[제229회-제2차 본회의]

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교사들의 교수학습 및 인성교육 분야의 으뜸교사를 2007년부터 매년 선발해서 최고의 영예와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교원들이 높은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18명, 2008, 2009년에는 각각 10명씩 현재까지 총 38명의 으뜸교사가 선발되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선발된 인원은 몇 명이며 어떤 절차로 응모하고 몇 명이나 응모해서 몇 명이 수상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업스타의 발굴도 으뜸교사의 한 분야로 흡수해서 우수교사를 다양하게 발굴 보상도 하고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으뜸교사 선발의 예선대회 성격으로 운영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먹는 물 표본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서 살펴본 먹는 물 표본 수질검사 계획에 의하면 정수기 및 냉온수기와 지하수를 검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표본 수질검사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이나 조치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또

이미 발견되었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본청 과장의 초·중등과 성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교육장의 경우 초·중등 비율이 5대 6, 남녀 성비는 10대 1, 본청 교육과장의 경우 역대 최초로 초등 출신 교육국장을 임용한 사실은 의미 있고 획기적인 인사라 평가하며, 다만 전문직 보임 과장 3명이 모두 중등인 것은 초·중등간 불균형 문제로 지적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부교육감님이 대신하긴 했지만 2008년 9월 행정감사 시 보충질문의 답변에서 차기 인사 시 시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밝혀주시고요, 이미 과반을 넘어선 여교사 비율은 물론 날로 늘어나는 여성 관리자 수를 감안하여 지역 교육장의 여성 비율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문제와 그 가정 아이들의 학교생활 적응 문제 등 교육적인 처방과 대처를 위하여 발빠르게 다문

화 가정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랑할만한 사례라 여겨지며 그 곳에서 봉사하는 교육계 원로들의 참여 실상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필요한 정보나 지식 등 실력을 구비하기 위하여 외부 연구 기관의 전문 강사 양성기관에 자비를 들여서 수강도 하고 초청 의뢰가 있는 곳이라면 지체 없이 찾아가 강의도 해 주는 등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 분들에게 최소한의 교통비나 식비라도 보존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는 보람을 느끼는 거에 비해서 경제적인 지원이 적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님, 앞으로의 계획이나 좋으신 생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광정수

서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성영용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관심과 사랑, 배려로 충북 교육을 이끌

어 가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충북 교육 가족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학여행 및 야영 불참자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수학여행 및 야영은 학창시절에 협동심을 키우고 호연지기를 기르는 등 교과수업 못지 않게 중요한데 최근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포기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2009학년도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 야영 실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경제적 사정으로 수학여행 및 야영을 포기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9년 교육복지사업 종합추진 계획 4쪽을 보면 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대상 학생은 누구이며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촌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28일자 충청매일 보도자료를 보면 충북지역 학부모 21%가 교사들에게 촌지를 줬다고 하고 이는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은 외부적

[제229회-제2차 본회의]

이고 타율적인 금지 대책보다 전문직 집단에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어교육 및 전용교실 활용도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좋은 교육정책이나 시책도 일선에서 호응하여 알차게 실행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도내 학교에는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현황과 활용도 분석 자료를 제시하시기 바라며 영어 소통 능력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핀란드의 경우 우리처럼 원어민 교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교사들의 힘으로 이루어 낸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중 영어로 수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영어교사의 실태가 몇 등급으로 정확히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써의 수업이 미흡한 영어교사에 대한 연수계획과 개선방안이 있으면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의 경우 원어민 교사 운영을 위한 예산이 2009년 본예산 39억 9,160만 6,000원, 1회 추경에 1억 2,100만원, 총 41억 1,260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속 이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예산 외에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현직 교사로 하여금 영어교육의 질적 향상에 투자하여 연찬회, 해외연수 실시, 실시 후 평가, 기준 이하일 때의 처리방안과 기 해외연수 교사의 활용 방안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향후 영어 교육엔 최고인 충북 교사를 육성하여야 된다고 보며 또한 앞으로 원어민 교사에 대한 예산 절감과 더불어 원어민 교사에 의존하는 현재 교육 방법에서 탈피하실 의지가 교육감께서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주향교 연수원 건립과 연계 교육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주향교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연수원을 건립하여 전통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선조들의 충효정신과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을 위해서 향교연수원과 협력하여 어떠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육감님 공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그 동안의 재임기간 동안에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잔여 임기가 1년여 남았는

데 그 동안의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기실 천 완료한 공약, 현재 추진중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변동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약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전 도민과 공약한 부분으로 이를 공개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제천학생회관 및 제천학생야영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학생회관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기능, 수영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탁구장 그리고 금년에 신축되는 건물이 완성되면 학생수련장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되는데 수영장의 경우 여름 한철 약 45일만 사용하고 여름이 아닌 다른 철에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면보수와 함께 여름 아닌 타 계절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붕을 씌우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영장은 수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50m 정규 레일을 확보하고 있으나 온수 보일러 미설치로 샤워실 기능이 안되며 수위조절판의 노후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적으로 예산투입을 하는가 하면 풀장의 바닥이 동절기에 다 동파되어서 크랙이 발생하여 누수로 인한 물 소비도 많고 더불어 발을 다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노

출되어 있고 배관 역시 10년 이상 되어 노후한 실정입니다.

제천의 경우 수영지정학교가 5개 학교로 각 학교에 육성 수영선수가 5명씩입니다.

이들이 훈련을 위해 제천 KBS 88체육관에서 자비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당 5명을 기준해서 1년에 수영장 사용료 300만원, 출전비 240만원, 계 540만원으로 5개교를 계산한다면 2,700만원의 육성비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들 선수의 실적을 보면 2009년도 소년체전에서 금 2, 은 12, 동 9개의 실적을 올렸음을 본다면은 제천학생회관의 수영장 개보수를 통한 이들 선수의 육성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천학생야영장은 인근의 사설수련원에 비해 시설낙후와 프로그램 부족등을 원인으로 수요자로부터 외면 받아왔습니다.

특히 일부 학생들만 수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련을 실시한다 해도 우천 시 취사 장소도 없고 천막 역시 노후하고 화장실마저 다시 지어야 할 형편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야영장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하고 존폐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몇 년째인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 등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방화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제229회-제2차 본회의]

질문드립니다.

2009년 4월 6일 개정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면 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들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6개월 내에 소방서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을 행정실장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자로 하도록 해설되어 있는데 단위학교에서 행정실장이 교사와 학생까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나며 또한 7·8·9급 행정실장이 감독적 직위에 있다고 생각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적 직위가 아니라면 감독청 입장에서 누구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해서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화관리 업무가 될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각급 학교의 행정실장의 보직 명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직위란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의하여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경우 일선학교 행정실장은 직위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칭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부산, 경기, 강원, 제주 등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규칙이나 훈령으로 행정실 설치와 실장을 보하도록 제도를 정비했지만 우리 충북의 경우는 몇 년 전에 공문 통보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규칙이나 훈령으로 제도화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 도교육청도 규칙이나 훈령으로 정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BTL사업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09년 5월 현재 1년 6개월 이상된 개교 학교 5개 학교 중 누수가 되거나 내벽에 실금이 된 균열 현상이 나타나 이 부분은 거의 보수는 되어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더 벌어지고 더욱 심화되어 건물의 견고성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도교육청에서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기와 같은 하자가 있다면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안정성 및 내구성에서 거의 만점 또는 이에 근접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 지급금 차등지급에 있어 운영비를 100%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공정성을 어떻게 판단

해야 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은 결과는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7명 중 시행사업자 위원이 3명이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이들은 제외 또는 1명 정도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초등학교 학구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일부 아파트 밀집지역의 학교는 신규 학교의 시설이 좋으므로 주소를 옮기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당초 학교 설립 당시보다 많은 아동들이 증가하게 되어 추후로 증축 또는 층수를 올려 과밀학교로 운동장이 협소하거나 특기·적성교육에 필요한 특별교실도 없어져야 되는 심각한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규 학교 주위의 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학생들이 통학이 가능한 근거리 학교를 묶어 총 입학 학생들에 대해서 중학교 추첨과 같이 추첨을 실시해서 학교를 배정하고 배정 후에는 그 구역 내의 타 학교로 전학을 불가케함으로써 증축 예산의 절감과 학교 간 균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충주 국원초와 연수초등학교 예성초등학교가 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열한 번째, 학교 통학버스 안전지도 요원 탑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도내 통학버스 운영학교로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의한 통학버스 안전요원 탑승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제 통학버스에 동승하지 않으면서 교사에게 월 3만원의 안전지도수당을 지급한 사례는 없는지, 있다면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려울 때는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인건비를 예산에 확보하여 운용할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직장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으로 아동양육할 수 없는 여건과 교육할 수 없는 여건이 큰 비중으로 분석되는데 이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예를 들어 청주의 경우 한 구역을 묶어서 그 구역 내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영유아의 양육 및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분평동이라면 그 주위의

[제229회-제2차 본회의]

학교 여럿을 초·중·고 묶어가지고 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님,
그리고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걱정수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10분 가량
지났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 의장 걱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이상일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교육위원 이상일입니다.

충북교육의 기본 방향을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에 두고 조화로운 학
력신장과 진취적 품성 함양, 그리고 균형
있는 복지구현을 교육시책으로 교육가족
이 만족하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서 노
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기용 교육감님
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

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 결과 우리 충북교육이 여러 방면에
결쳐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우수한 교육
청으로 평가받고 있어 교육가족의 한 사
람으로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
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충북교육
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
신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8년도 학업성취도 결과에 대한 분석
및 2009년도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
가에 대비하는 도교육청의 장학지도 방안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10월 14일,
15일 양일간에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09년 2월 16일 공개하였습니다.

평가의 목적은 국가교육과정이 제공하
는 학업수준에 학생들이 도달했는지 그
성취도를 파악하는 시험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내용으로 치르고 기초학력 미
달 정도를 파악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
한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함이었습
니다.

그 결과를 보면 전국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초등학교 응시자 전체의
2.4%인 1만 5,000명, 중학교 3학년 응시
자 10.5%인 6만 9,000명, 고등학교 응시

자의 7.19%인 4만 4,000명이 학력미달자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도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내용을 보면 평가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 2만 679명, 중학교 3학년 2만 877명, 고등학교 1학년 1만 3,307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였는데 그 평가결과를 보면 전국대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초등학교는 2.65%로 전국 평균 2.54%보다 높은 편이고 중학교는 10.56%로 전국 비율 10.56%와 같으며 고등학교는 5.7%로 전국 비율 7.19%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중학교보다는 고등학생들의 부진 비율이 낮아 상급 학교로 갈수록 성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학습이 부진한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초등학교 영어과목 미달 비율이 높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두 번째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장학지도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수업스타 발굴 계획과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시험실시 계획을 보면 2009년

3월 10일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실시되고, 두 번째로 2009년 10월 13일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이 실시되며 세 번째로 2009년 12월 23일 중학교 1,2학년 전국 학생 학력평가 등 3차례 시험이 실시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성적평가 시 타 시·도 교육청에서 성적 조작 사건이 발생하여 교육장이 사임하고 학력평가 담당 장학사가 직위해제되고 교육감이 국민께 사과하는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을 우리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적미달자 몇 명을 빼고 시험을 본다거나 체육부 학생 등 공부 못하는 학생 일부를 시험에서 제외하는 등 비교육적인 행위를 철저히 예방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폭력은 국가와 사회 모두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여 폭력없는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여러 대안과 범

[제229회-제2차 본회의]

국민적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초등학교 4,5,6학년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등 저연령화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07년 11만 5,661명이던 청소년 범죄가 2008년에는 전년도 대비 6.4% 증가한 12만 342명으로 1년 사이에 7,381명이 증가했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학교폭력의 55%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그 수법도 점차 흉악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교사 및 학부모, 경찰공무원, 변호사, 의사자격증 소지자들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에서 폭력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내 각급 학교에서 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 동법 제12조에는 학교의 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 상담교사를 두며

전문 상담교사와 책임교사, 보건교사 등으로 이루어진 학교폭력문제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법 제15조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네 번째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일선 학교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학교의 이미지 실추와 교장, 교감, 담임교사에 대한 문책을 피하기 위해 학교내 폭력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여 적당히 처리하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은폐 축소보다는 폭력을 뿌리부터 밝혀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도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며 가해 학생을 선도 교육하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의 틀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축소 은폐하여 사후에 문제를 키우는 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도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2009년 2월 24일 도내 모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기고 여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추행하는 등 수개월간 성적 수치심을 준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려주시고 향후 폭력의 정도가 심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교육청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정수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무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화사하게 곱게 피었던 영산홍도 계절의 여왕 5월에 밀려 이제 그 아름다운 자태는 찾아볼 수 없고 더구나 오늘은 만물이 점차 성장하며 보리가 익어가고 산에서는 부엉이가 울어댄다는 24절기 중 하나인

소만입니다.

2009년도 충북교육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교육비전을 “충북 Edu★Star 2015! 교육만족 전국 최상위로” 라고 새롭게 설정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또 금년 2009년도를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교육을 구현하는 해로 설정하고 불철주야로 열정을 바치고 있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품성함양을 위한 기본 생활규범 실천 운동뿐 아니라 학력과 체력 등 모든 교육 활동 부문에서 기초와 기본이 튼튼한 교육을 강조해 나가겠다고 신년을 맞이하는 인사 말씀에서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하여 부진학생을 줄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상일 위원님께서도 앞에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지난 2월 16일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 결과 우리 교육청 초·중등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자칫 교육계의 사교육 의존 심화와 대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이탈 가속화 등 지역 공교육의 기반을 뒤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29회-제2차 본회의]

전라북도 모 교육청을 비롯 몇몇 교육청에서 성적 집계를 조작하는 등 비양심적인 추태를 보인 데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다행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건도 바리가 없어 불행 중 다행입니다.

기초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 3월 31일 실시한 교과학습 진단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전국대비 우리 도의 수준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경영에 대한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경영평가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경영평가의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영역별 배점은 어떻게 하는 건지, 평가의 결과에 대하여는 책무성을 각인시키고 상벌의 원칙에 따라 파급적인 인사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력을 조화롭게 신장시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열정과 수업지도 능력, 다시 말해 훌륭한 수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수용 위원님께서도 으뜸교사와 관련해 수업스타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학생들이 재미있고 즐거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수업연구 발표대회를 열어 수업우수 교사 수업스타를 발굴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교사들의 참여율이 매우 낮아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연중 행사로 전락한 느낌이 듭니다.

지난해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에 의하면 도 수업연구 발표대회의 참가자가 적은 원인은 초등의 경우 학교와 지역의 예비 심사를 거쳐 참가하기 때문이며 중등의 경우 타 연구대회와 비교하여 볼 때 수업스타에 대한 준비와 노력에 비하여 유인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수업스타 한사람을 발굴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수업스타 발굴은 바로 수업개선이고 수업개선은 바로 학력제고라는 차원에서 수업스타에 대한 파격적인 예우로 유인책을 만들어 교사로서 가장 명예로운 수업스타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주신 답변자료에 의하면 참가자의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참가자 968명, 지역과 도대회 참가자 482명으로 전체 교원수 1만 2,874명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

적입니다.

더구나 초등의 경우 학교 참가자 968명은 숫자 늘리기 위한 교내 연구수업을 한 것이지 대회 참가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스타 1등급 교사 26명을 캐나다 토론토에 국외연수 시키는 것으로는 수업연구 발표대회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실수업 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한 수업스타의 발굴을 위하여 수업연구 발표대회의 확대 실시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확대 실시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유인책으로 수업스타의 파격적인 예우를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급식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및 교육복지 증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소득층 자녀에게 중식비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급식비가 미납되고 있다는데 2007년도 2008년도분 미납액은 몇 명이 얼마나 미납했는지 또 미납된 원인이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기숙형 공립고의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숙형 공립고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과제중 하나이며 교과부에서 향후 지역 거점학교, 즉 명문학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보다 농산촌 지역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기숙사비를 내지 못하여 자퇴하는 학생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숙형 공립고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중장기 학생수 감소에 따른 기숙형 공립고의 운영대책은 무엇인지, 이 사업의 재정 효율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기숙형 사립고에 대한 확대 계획도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단기방학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5월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과 사랑을 나누는 가정의 달로 가족적인 행사가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또 국경일과 휴일이 징검다리 같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있는 수업일을 소풍이나 체험학습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지만 단기 방학을 실시하는 학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229회-제2차 본회의]

직업을 가진 학부모가 이 단기방학 실시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는데 단기방학 실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기방학 운영은 학교장의 자율경영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제한한다거나 향후 지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통학버스의 안전 운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52조, 53조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통학버스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직원이나 보육시설 종사자, 학원강사, 체육시설 종사자, 통학버스 운전자가 지명한 사람이 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립 유치원이나 학교의 경우 행정지도가 그런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설학원의 경우 교통안전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설학원의 통학차량 중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차량은 전체 대비 몇 퍼센트인지, 차량운행 시 동승자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도교육청 차원의 행정지도 실적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행정지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학생복지 차원에서 다목적 교실을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하고 있는데 2009년 말 현재 보유수를 초·중·고, 특수학교 별 보유수 및 전체 대비와 미보유 학교의 신축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단설유치원의 급식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초등학교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유아 특성상 학부모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옥천 삼양유치원과 충주 남산유치원에 급식소가 설립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이 야기되어야 지어주는 관습에서 벗어나 사전에 가려운 곳을 미리 알아서 끊어주는 친절하고도 봉사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단설유치원에 대하여도 차후 급식소 설치에 대한 연차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김병우, 김부웅 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겁니다.

BTL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 돈을 투자해 학교 등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리스료 명목으로 20여 년간 공사비와 일정 이익을 분할 상환 받는 민자

유치 방식은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해야 하므로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아 BTL사업보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한 BTL사업의 총규모와 해마다 상환하는 액수는 얼마인지 BTL사업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교직원 연립사택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선생님, 즉 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교 근처에 사시면서 학습면과 생활면을 지도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교육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통문화의 발달과 자녀교육 문제로 많은 교사가 도시에 살면서 시골에 있는 학교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혹 학교 사택에 거주하고 싶지만 기존 사택의 구조가 열악하고 상하수도, 냉난방 시설 등이 미흡하고 근처에 인가가 없기 때문에 신변 안전상 살 수가 없습니다.

갓 교대를 나온 햇병아리 교사는 물론 미혼이신 교사들 또 인문계 고교의 진학

지도를 하시는 교사들 많은 분들이 학교 근처에 머물고 싶지만 환경이 따라주질 않는 것 같습니다.

옥천만 하더라도 원룸식 연립사택을 읍소재지에 30채 가량 지어주면 많은 교사들이 출퇴근하는 번거로움에서 탈피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유가 시대에 기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사택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립사택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를 타거나 길을 걷다보면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할 말이 많은지 오랜시간 통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버스 속에서 휴대폰으로 무슨 게임을 하는지 게임에 몰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책보다 휴대폰을 선호하는 것 같아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소지에 대하여 학교 실정에 맞도록 학교장에게 위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규제 방침이나 휴대폰 사용 지침서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9회-제2차 본회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정수

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셨
습니다.

교육행정 질문을 심도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
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에서는 질문의 요점에 성의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박정수, 부의장 김부용,
위원 김병우, 서수용, 성영용,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이기용, 교육국장 전재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중등교육과장 이수철,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증찬,
총무과장 서재문, 기획관리과장 홍준기,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재무과장 박노화, 시설과장 안세열.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9년 5월 22일 (금) 10시 30분

議事日程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2009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附議된 案件

1. 2009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2.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30분 개의)

● 의장 걱정수

● 의장 걱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김경숙 산업정보평생과장께서는 건강상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현장을 방문하시어 관계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또한 심도있는 협의를 하신 바 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229회-제3차 본회의]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32분)

● 의장 광정수

의사일정 제2항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청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시되 보충질문 및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기용

존경하는 광정수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아낌없

는 지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8만여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관심 사랑 화합으로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앞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신 순에 따라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그 외 사항은 부교육감과 관계관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김병우 위원님께서 교육과학연구원의 연구원을 독립 직속기관화하여 연구전문 교원들로 배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에 연구가 미흡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교육개발원이나 교육평가원 등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하는 절차를 통해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주요 교육 정책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와 점검은 교육과학연구원
에서 연구와 평가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교육 현안들을 연구하
고 검증하는 보완기능으로 도교육청에서
도 성격에 따라 TF팀을 구성하거나 위원
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중요한 교육 정책이나 사업에 대
해서는 정책연구 용역을 주고 정책모니터
링과 충북교육정책 청문관계 등을 통하여
점검하고 연구하는 절차를 거쳐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며 예산 낭비도 사
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연구원의 연구기능을 활
성화하고 이러닝과 교육정보화의 급속한
변화에 발 맞춰 2012년에 교육과학연구원
에서 정보지원부를 분리하여 교육정보원
을 설립할 계획이며 여건이 성숙되는 대
로 도내 교원 중 연구 역량이 있는 우수
한 인재를 적극 활용하여 연구원의 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
습니다.

다음은 김부웅 교육위원님의 질문에 대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웅 위원님께서 교사들만이라도 조
기 발령하는 방안과 학기중 교사 발령 문
제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사들만이라도 조기 발령하는 방
안을 모색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

리겠습니다.

신입생 예비소집이 1월 말에 실시되어
학급편성 자료가 2월 초에 확정되고 새
학년도의 교원 정원은 2월 중순에 교육과
학기술부로부터 확정되어 배정되기 때문
에 기존 3월 1일자 정기이동 시기를 2월
초로 앞당겨 실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
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기중 교사 발령 문제 해소 방
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
해서 학기 중에는 특별한 경우와 교과전
담 교사 이외의 담임교사는 전보하지 않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현재까지 학기중
담임교사의 이동 발령은 징계처분자 1명
이었습니다.

참고로 2009년 5월 현재 병역휴직 7명,
육아휴직 2명, 학급중설 4명 등 13명의
결원 보충은 교과전담교사의 전보와 신규
교사로 임용하였습니다.

9월 1일자 전보 발령은 정년퇴직, 명
예퇴직 등 교사수급과 관련하여 종합적으
로 검토하되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다음은 성영용 위원님께서 교육감 공약
관련 분석 및 공개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29회-제3차 본회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 12월 19일 제14대 교육감 취임 이후 내실있는 공약의 추진으로 도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2008년 2월 15일 4개 분야 20개 영역 73개 세부실천과제에 총 소요예산 6,607억원을 투자하는 공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과제별로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라 공약 추진의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고자 일부 과제를 2차에 걸쳐 검토 조정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 현재 공약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1개 실천과제 중 추진 완료 6개 과제, 정상 추진 63개 과제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임기 내 완료가 불가한 과제는 제천 하소초등학교 신설과 충북교육정보원 설립 2개 과제입니다.

공약의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충북과학고등학교의 영재고 전환 추진을 지속형 영재교육센터 설립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통합하였으며 제2학생종합수련원 건립기반 구축은 청풍학생종합수련원 건립 부지가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천 하소초등학교 신설은 교과부의 예산지원 불가로 동명초등학교를 2012년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충북교육정보원 설립은 신축 부지를 분청 서편 부

근 농지를 추가 매입하여 2012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 총 투자액은 당초 6,607억원에서 403억원을 감액한 6,204억원으로 조정하여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 현재 소요예산 총 6,204억원 대비 37.6%인 2,33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70% 이상 집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공약사업의 철저한 점검과 적시적 추진으로 공약이 임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약 추진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하며, 향후 홈페이지 및 교육소식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위원님께서 2009년도 전국학력평가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행·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시범교육청, 시범학교, 선도학교를 운영하여 학력향상 프로그램 및 지도 자료를 개발 보급할 예정이며,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일과 중 각종 회의 및 집합교육을 지양하고 교과교육연구회 및 교사 동아리 등 활동을 통해 학력향상 방안에 대한 정보공유 및 연구 풍토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평가 시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요청장학 및 수시장학을 강화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장학제고 방안을 적극 지원하며 학습부진 Zero화를 위한 책무성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담임교사 실명제 실시, 중학교는 수준별 수업의 활성화 지원 및 고입전형 선발고사를 2011학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학교단위 수업방법 개선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4회 실시하여 객관적인 학력측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향상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각종 표창 및 연수에 우선 추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부 위원님께서 학업성취도 분석결과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최선의 방안과 3월 31일 실시한 교과학습 진단평가 결과 전국대비 우리 도의 수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다각적인 시각으로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하는 학습 동기 유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선생님들의 열정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단위에서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여 질 높은 교실수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수업스타 연구발표대회, 교실수업실천사례 발표대회,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하고, 둘째, 학교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교의 자율성 확보와 책무성을 강화하며, 셋째, 학력향상에 대한 바른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넷째,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실시한 교과학습 진단평가 결과는 취합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 자체로 학생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수용 위원님께서 본청 교육전문직 초·중등 보직 비율과 지역교육청 교육장 성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교육전문직 국·과장 보직 현황

[제229회-제3차 본회의]

은 초등전문직 2명, 중등전문직 4명으로 전문직 보임 과장 학교정책과, 산업정보 평생과, 체육보건급식과 이렇게 3명이 모두 중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서 운영상 전공을 필요로 하는 업무 특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속기관장과 지역교육장 등의 보임 비율은 초등 7명, 중등 8명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학생외국어교육원장은 초·중등이 교체해서 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때에 따라서는 초등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2008년 9월 행정감사 보충 질의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향후 부서별 업무의 특성을 파악하여 균형 보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 3월 1일자로 옥천교육청 교육장에 여성 교육장을 발령하였으며 향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 능력과 인격을 겸비한 여성교육장을 임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께정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우승구

부교육감 우승구입니다.

먼저 김병우 위원님께서 유아교육원 재추진 의지와 계획, 기존 단설유치원에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자녀의 우선 취원 보장방안 강구 그리고 성화동 유치원 건립 예정부지에 다문화체험센터 설립을 검토해 볼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원 재추진 의지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의회 예산 심의 시 부결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 계획을 보완하고 설립 취지 및 목적에 부합되며 적합성이 높다고 사료되는 설립 부지 예정지를 재 답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타 시·도의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사례 및 설립 추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국에서 보다 우수한 기관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존 단설유치원에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의 우선 취원 보장방안을 강구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원아모집은 유아교육법의 범위 안에서 유치원의 실정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장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

기존의 단설유치원에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자녀의 취원률은 27.6%이며 40%~51%대의 취원률을 보이는 유치원은 3개 단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올해 저소득층 자녀의 법적 기준이 완화됨을 감안하여 더 많은 대상 자녀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현 성화동 유치원 건립예정부지의 다문화체험센터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화동 유치원 건립 예정부지는 유치원 원아의 수용을 위해 확보한 용지이나,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은 유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인근 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 집 등 취원 대상 아동의 취원 여건에 따라 설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유치원 설립 부지로 존속되어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다문화체험센터는 별도의 추진방안을 강구토록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부웅 위원님께서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으로 일선학교의 업무과중과 시책공해의 심각성을 면밀한 사업검토로 일선의 사정에 비추어 예산 지원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규사업들로 인해 발생하는 일선학교의 애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예산이 수시로 교부됨으로 인해서 각 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일선학교에서 행정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3월초에 세부사업 예산을 교부하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교과부로부터 지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별, 학교 규모별로 사업대상 및 소요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선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세부사업 중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표출을 통해 통합추진 등의 방식 개선과 현장의 실정을 감안한 정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유사사업의 통·폐합, 예산 배부시기 조정 등의 적극

[제229회-제3차 본회의]

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수용 위원님께서는 으뜸교사 선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으뜸교사의 응모절차는 시·도교육청 실정에 맞는 으뜸교사 심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천위원회와 별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후 공모에 대해서 홍보 및 접수를 하게 됩니다.

추천위원회에서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실사 보고서를 심사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2명 이내를 추천합니다.

으뜸교사의 응모현황은 2007년도에 3명, 2008년도에 6명, 2009년도에 5명이 응모하였으며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으뜸교사로 선발된 인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업스타 선발을 으뜸교사 선발대회 예선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 수업실연만으로 선정되는 수업스타는 으뜸교사 선발 기준의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으뜸교사 선발 예선대회로 대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스타 중에서 우수 교원을 으뜸교사로 적극 추천하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영용 위원님께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수학여행 및 야영활동 포기자에 대한 대책과 체험학습비 지원현황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82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파악한 수학여행 불참자수는 2008년도에 613명으로 2007학년도 불참 학생수 117명과 비교할 때 49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수학여행에 불참하는 사유는 원인별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환율상승과 경기침체 등 최근 국가적인 경제난의 여파가 학부모의 가계에 영향을 미친 결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2007년도 7개교가 중국, 일본 등 해외 수학여행을 실시하던 것을 2008년도에는 국내로 여행지를 바꾸었고, 5개 학교가 제주도 대신 남해안 및 동해안으로 여행지를 바꾸어 학부모들의 여행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2009년의 경우에는 5월 현재 수학여행을 실시한 32개 고등학교의 불참자 수는 355명이며 이중 경제적 사정으로 불참한 학생수는 22.3%에 해당하는 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수학여행 계획은 국내의 경제 상황 등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행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경비 부담으로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영활동의 경우에도 야영의 교육적인 의미와 근본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야외 천막을 설치하는 설명 활동 중심의 야영활동을 더욱 더 권장하고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야영 수련 시설을 개선하여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야영활동에 소요되는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복지 사업종합추진 계획의 체험학습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소년기에 협동심을 키우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도록 체험학습을 권장하고 있으며, 교육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권 자녀와 차상위 계층 자녀 등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 실정과 교육여건에 따라 다양한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 종합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86억 3,000만원,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6,000만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27억, 저소득층 밀집 교 지원 4억 5,000만원, 도시문화체험학습 지원 1억 3,0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19억 6,000만원 등

139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체험학습 기회확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에서는 가정 형편상 체험학습비 납부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동문회와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회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체험학습 미참가 학생수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단위의 다양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확대 방안과 함께 이들을 위한 체험학습비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위원님께서 도내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실은 도내 모든 학교에 설치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으로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전문상담교사는 31명이며 보건교사는 282명이 배치되어 있고, 상담교사나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로 전담기구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229회-제3차 본회의]

2008년도 학생공감형 상담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교당 3,000만원을 지원하여 22개 학교에 Wee Class를 설치하였고 올해 68개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무 위원님께서 학교경영평가의 세부내역과 영역별 배점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상별 원칙에 따라 파격적 인사를 단행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경영평가는 연말에 초·중·고 학교 20% 이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유치원, 특수학교 등을 포함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 내용 및 배점은 학교장으로서의 품성 및 직무수행능력 20점, 학력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 40점,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노력 및 지도실태 4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학교급별 최상위 3개교는 우수교로 시상하고 1,000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학교장의 전보 및 중임 심사 등의 인사 반영과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도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걱정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전재원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교육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우 위원님께서 학교 통폐합으로 급식비 지원이 축소되는 경우의 대책과 퇴임교사들의 복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학교 통폐합으로 급식비 지원이 축소되는 경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의거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2006년부터 농산촌지역 급식비와 농촌지역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실시한 2006년 이후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기존 급식지원이 축소된 사례는 없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폐합으로 인해 농산촌지역 급식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들의 경우 예외 규정을 두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퇴직 신청과 퇴직시기를 개인별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 원하는 시기에 명예퇴직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교사들의 복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교원의 수급 문제를 비롯한 원활한 인사운영과 학기 중 담임 교체 문제가 예상되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퇴직 전 교육프로그램 및 공로연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 전 공로연수를 권장할 경우 학기 중 담임의 잦은 교체로 인한 문제와 학부모들이 퇴직예정 대상 교사들을 담임으로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퇴직 준비 휴가 제도 적용에 대하여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김부웅 위원님께서서는 초등교사 인사문제, 유아교육 문제, 특수교육환경개선 방안, 일선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행사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소수직렬 교원들의 전보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의 다양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빠른 인사 순환을 위한 충

청북도교육공무원 초·중등 인사관리기준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교사 및 특수교사 역시 충청북도교육공무원 초·중등인사관리기준에서 같은 직렬의 교사 들끼리 인사관리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소수 직렬 교원들이 전보에 문제가 있다면 향후 연구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기중 교사들의 연수로 인한 수업결손 해소 대책에 대하여는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학기중에 시행되고 있는 연수과정으로는 단재교육연수원의 초·중등 영어회화 심화 직무연수 1개 과정이 있었습니다.

추후 연수계획 수립 시에는 학기 중 수업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학 중에 개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년 이상 경력의 특수교육전공 교사들의 전문직 시험 응시기회 부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담당 전문직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특수학교 교사 자격을 소지한 모든 교원들에게 전문직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관련된 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급식소까지 비막이 이동 통로가 없는 곳에 대한 개선 계획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연차적 지원 계획을 수립

[제229회-제3차 본회의]

하여 시급한 유치원부터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일반 운영에 따른 유치원 현장의 문제점 개선 용의에 대하여는 종일제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증대되어 유치원 종일반 운영이 확대됨에 따라 종일반 전용교실, 수면실, 유희실 등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유희교실 활용을 권장하고 초등학교 신·증축 시에 유치원 종일반 교실이 신설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환경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수학급설치기준에 따른 학급증설이 이루어지지 못한 학급이 일부 있습니다.

용담초 현양원 분교, 서경중학교, 서원고등학교는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2학급을 증설하여야 하는데 1학급만 증설하였던 것입니다.

2009학년도에 특수교사 정원이 동결되었지만 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8학급, 고등학교 6학급, 총 24학급을 신·증설하였습니다.

2010학년도에 교실 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정원을 확보하여 특수학급에 과밀학급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행사의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읍면 지역 초·중·고등학교 중 각 2개교씩 18개교를 선정하여 시군 단위 행사에 동원되는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8년도에는 연인원 3,345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83편의 작품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체 행사 간소화 방안에 대한 전문직의 의견은 도교육청 단위의 각종 시상이나 전달 성격의 행사 및 참석 대상자가 동일한 회의는 같은 시간에 합동으로 개최하고 단위 학교의 경우 시·군 행사 중 현장학습 성격의 행사를 미리 파악하여 학교 행사의 일정으로 함께 추진되는 것이 좋겠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 및 각종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유사한 성격의 행사인 경우 통합 개최하는 등 횟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각종 외부 행사가 교원의 과다한 잡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수웅 교육위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수용 위원님께서서는 충청북도교육과학 연구원의 운영, 먹는 물 표본 수질검사 및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의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닝 학습 및 교육 정보화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교육정보원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교육과학연구원의 정보 지원부 업무를 분리하여 교육정보원을 설립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서쪽 제2주차장 인근 농지를 매입하여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 중에 있으며 2012년에는 교육정보원을 개원하여 변화하는 학교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 표본 수질검사 결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먹는 물 표본 수질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하수 35개소, 정수기 73개교 87대를 대상으로 표본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 등으로 정수기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나 수질검사 결과 위생관리 미흡으로 10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철거 조치하였습니다.

학교별 담당자 지정으로 주1회 자체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수돗물의 직결수 전환으로 안전한 음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에서 봉사하는 교육계 원로들에게 최소한의 교통비나 식대를 보전하여 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는 지난 2월 2일 개소 후 교육계 원로 등 자원봉사자 60여 명을 위촉하여 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 이해 제고 및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 상담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소 부족하지만 지난 1차 추경예산에 600만원을 편성하여 외부 교육 지원 시에 교통비와 식비 성격이 포함된 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 출강 시에는 강의 요청 학교에서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다문화 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의 사업 확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 지원 확대를 적

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성영용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성영용 위원님께서서는 학교촌지의 특단의 대책, 영어교육 및 전용교실 활용도, 청주향교연수원 건립과 연계한 교육방안, 제천학생회관, 제천학생야영장 활용 방안, 도내 통학버스 안전지도 요원 탑승 문제,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학교촌지 관련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교육풍토와 신뢰받는 교직원문화 조성을 위하여 촌지수수 근절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고센터와 전담부서 등 촌지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현수막, 입간판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교육감이 직접 직원들에게 보내는 청렴 편지를 교사가 교사에게, 교사가 학부모에게, 학부모가 교사에게 함께 청렴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교육가족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촌지 수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교육 및 전용교실 활용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영어전용교실 설치현황과 활용도 분석자료는 2008년도에는 초등학교 66교, 중학교 중학교 55교, 고등학교 32교로 총 153교가 구축되었고, 2009년도에도 중학교 31교, 고등학교 16교로 총 47개교가 지원되어 총 48.4%의 학교에 영어전용교실 시설이 구축되고 예정입니다.

영어전용교실은 정규교과시간, 원어민원격화상강의, 영어 관련 방과후 활동, 영어계발활동, 영어캠프와 같은 영어 관련 행사에 활용되고 있으며, 점심시간 및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영어전용 도서실, 학생영어동아리실, EBS 방송 활용 학습실 등 English Zone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사의 수업능력을 5등급으로 파악한 자료 제시 및 수업능력 미흡 교사에 대한 연수계획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직 교사의 교수학습 능력 실태를 5등급으로 파악하여 미흡한 교사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은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의 영어교육에 대한 지극한 애정과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이 가능한 수준까지 영어 교사의 수업지도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우리나라 영어공교육 정상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전적

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직 교사를 교수-학습 능력별로 5등급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수업 능력이 미흡한 교사에 대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은 우리나라 전체 영어 교사에 대한 평가 문제와 관련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향후 우리나라 교원평가 등과 연계하여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사 대상 각종 연수 등 현직 교사의 질적 향상에 투자하여 원어민 교사에 의존하는 현재 교육방법에서 탈피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초청 활용사업은 세계화 시대를 맞아 영어교육을 강화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부 차원의 사업입니다.

2009년도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120명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와 각급 학교에 배치되어 각급 학교별로 학급당 대략 주1회 정도씩 정규 교과와 방과후학교 수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어교사 맞춤형 자기연수 프로그램 운영, 초·중

등 영어교사 연찬회, 교원대 6개월 심화 연수,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영어교사의 학습지도 능력을 제고하여 영어 교사가 원어민 교사의 도움 없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수 프로그램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매년 연수 결과 보고회와 연수 프로그램 평가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익년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연수 참가 교사를 학생과 교사 대상 각종 프로그램에 강사 또는 운영요원 등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을 위한 각종 장학자료를 발간, 활용하고 도내 영어교사의 학습지도 능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어교사의 교수학습지도 능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향교연수원 건립과 연계한 교육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13일 준공한 청주향교연수원에서는 청소년과 성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예절교육, 선비교육, 한국문화 체험교육 등 인성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개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구체

[제229회-제3차 본회의]

적인 협력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은 추후 청주향교와의 협의를 통해 선조들의 충효정신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 등 실천적 인성교육 함양을 위해 연계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학생회관내 수영장 지붕설치방안과 학생야영장의 사용목적 전환 등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천학생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은 하절기 45일 정도로 지역주민 및 학생들에게 개장하고 있으며 이용실적이 비교적 높은 편이나 지붕 미설치로 실내수영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천학생회관내 수영장 지붕설치 방안은 학생과 지역의 욕구를 고려하여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현행 도교육청의 야영활동 방침은 도내 수련기관 및 야영시설을 이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 각급 학교 야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도교육청 관할의 5개의 학생야영장의 이용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야영장의 시설보수 및 프로그램 개발로 학생야영장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천학생야영장의 사용 목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활용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학생회관 수영장 개보수를 통한 선수 육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 관내 수영지정 학교는 용두초, 신백초, 장락초, 제천중, 제천여중 등 5개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정종목은 학교체육 및 엘리트 선수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따라서 5개교의 선수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학생회관 수영장은 연차적인 개보수가 되기 전까지는 일반 학생들이 학교체육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엘리트 선수들은 연중 훈련이 필요하므로 KBS 88수영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사용료 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영장 사용료 지급에 따른 선수육성비를 지역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엘리트 선수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통학버스 안전지도 요원 탑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안전요원 탑승률에 대하

여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 통학버스는 직영 134대, 임대 52대로 총 186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원칙적으로 안전지도 요원이 100% 탑승하여 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교내 행사, 출장 등으로 안전요원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전요원 없이 운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승하지 않은 교사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 동승지도 교원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 10회 이상 동승한 교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부당 지급사례는 발견된 바가 없으나 만일 관련 규정을 어기고 지급한 경우 종합부분감사 시 확인하여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 도우미 예산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내 전체 통학차량에 대하여 시간제로 안전도우미를 운영할 경우 순수 인건비만 연간 약 11억원 정도이며, 보험금 및 퇴직금을 합산할 경우 13억원 정도 소요되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산 문제를 감안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을 극

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구역 내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교육청이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관리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상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일 위원님께서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초등학교의 성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한 분석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초등학교는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르기 위하여 인성교육과 특기적성 계발교육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특히 특기적성 위주의 방과후교육 활동 운영으로 보충학습지도 시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둘째,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 초등학교 교과활동 평가는 학생의 활동상황과 특징, 진보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서술적으로 기록함으로써 학생의 학력 수준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부족한 형편이며, 셋째, 기초학력 책임지도에 대한 교사, 학교장, 교육청의 협력체제가 체계적이지 못하였으며 학력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이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229회-제3차 본회의]

초등 영어과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직무 연수 및 심화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원어민 강사 및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확대 배치할 계획이며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운영 및 남부 영어체험센터 개원에 이어 북부 영어 체험센터를 개원하여 단기 집중 영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재량활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영어교육 시간을 확대 운영하여 영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장학지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통한 학력 신장 교육의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화로운 학력 신장을 위하여 맞춤형 학력 관리, 교실 수업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장 교감의 장학지도 강화, 동료 장학의 활성화를 중점과제로 실천하고 있으며, 학력 신장 책임지도의 점검 및 컨설팅을 위한 수시장학, 교사의 요구와 능력을 고려한 선택적 장학, 담임 및 요청 장학을 활성화한 맞춤 장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선생님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학력향상 유공 교원에 대하여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기초학습 보충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별보충지도 수당 및 학습보조강사 지원, 학습부진학생 관리 사이버 가정학습 시스템 구축, 학습보조 인턴 교사 및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 지원, 지자체와 연계한 마을 공부방 운영 지원, 다문화 가정학생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 학습부진아 지도자료 개발 보급 등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에 학습부진학생 지도수당을 신설하여 20학급 미만은 600만원, 20학급 이상은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고등학교도 학력제고 지원금을 학교규모에 따라 30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수업스타 발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업스타 발굴에 있어서는 전 교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 과목인 5대 교과를 대상으로 수업스타를 발굴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수업연구 발표대회 심사 시 학

력 향상 연간 지도 계획 및 학급 내에서의 학력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중학교 방과후 중심학교인 에듀코어 스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의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여건과 특색을 살린 방과후 교과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방학중엔 학력향상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과 방학아카데미 운영, 농촌지역에 많은 다문화 가정의 교육 지원 확대를 더욱 활성화해 나겠습니다.

2009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학업성취도평가 처리 결과에서 우리 교육청은 성적조작 관련 사안이 전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성취도평가에 대한 사전 홍보 및 연수를 강화하여 이해도를 제고하고 평가 시행 및 성적처리 과정에서 평가감독은 복수감독제 원칙으로 시행하며 서답형 문항 채점은 본청 및 지역교육청별로 2인 1조의 채점단을 구성하여 개별문항 단위로 채점함으로써 채점자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결과의 집계 및 보고는 자동집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보고 체

제를 확립하여 채점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체육특기자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응시현황은 별도로 집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학생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비교육적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 및 사후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도내 각급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해당 학교 교감, 학생생활지도 경력교사, 학부모대표, 법조인, 경찰 공무원 등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도내 초·중·고등학교 471교에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기당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학기당 2회 이상, 연간 5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교육력을 집중하여 각급 학교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책임교사제 운영, 친구사랑 운동 전개,

[제229회-제3차 본회의]

단위학교 내 친한친구교실(Wee Class) 운영, 학생생활지원단(Wee Center)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청명학생교육원 운영을 통한 정서적 순화 교육 등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책 및 축소 은폐하여 사후 문제를 키우는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교육력을 집중하여 각급 학교별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감동생활지도, 전문상담교사 배치, 배움터지킴이 확대 등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명학생교육원 운영을 통해서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공문과 지침, 연찬회의, 장학지도 등을 통해 모든 사안 발생 시 즉시 보고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축소 은폐 등 학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와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 및 인사조치 등의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의 강력 폭행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사건별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언론에 보도된 청주 모 중학교 성추행 사건은 2008년 12월에 발생한 것으로 당월 학교에서 가피해자의 부모간 합의를 통해 1차 원만한 조치를 하였으나, 2009년 3월 관련 가피해 학생이 모두 증명의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어 피해자의 부모가 전학을 요구해 불거진 것으로, 피해 학생을 청주의 모 고등학교로 전학시키고 가해 학생들에 대해 선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이수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에 있었던 청주 모 중학교 폭행치사 사건은 주동 학생은 타시·도로 전학한 후 사법적 조치를 받았고, 나머지 학생은 출석정지와 특별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조치를 하였습니다.

폭력의 정도가 심한 가해 학생에 대한 향후 처리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폭력의 정도가 심한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사법적 조치를 하겠으며, 사법적 조치가 따르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단위학교 차원의 친한친구교실(Wee Class) 운영, 교육청 차원의 진단-상담-치료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학생생활지원단(Wee Center) 구축 운영, 그리고 현재 설립 추진중인 청명학생교육원에서 장기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심성교화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무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무 위원님께서 수업스타 발굴을 위한 확대실시 방안, 급식비 미납 현황과 그 원인 및 대책, 단기방학 실시의 문제점 및 대비책과 도교육청의 향후 지도방안, 사설학원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대하여, 휴대폰 소지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방침이나 지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수업스타 발굴을 위한 확대실시 방안과 유인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의 경우 2008년도 도 수업연구대회에서 1,2,3등급 78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102명의 입상자를 선정 시상하고자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중등의 경우 또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40명에서 45명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업스타의 유인책에 대해서는 입상자에게 교육감 상장과 연구실적을 부여하고, 1등급 수업스타에게 교실수업 국제비교연수를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2010년부터 교육전문직 선발 시 수업연구실적 가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또한 수업스타 연찬회, 우수활동 수업스타에 대한 감사패 수여, 성과상여금, 근무성적평정, 표창 및 해외연수 시 우선

추천 등 좋은 수업을 전개하고 있는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는 교직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식비 미납현황과 미납된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년말 기준 급식비를 미납하거나 연체한 학생을 조사한 결과 2007년도에는 전체 학생의 0.3%인 729명이 9,272만 8,000원을 미납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전체 학생의 0.4%인 1,027명이 1억 931만 9,000원을 미납하여 전년 대비 298명, 1,659만 1,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도에 전체 학생수의 9.6%인 2만 2,739명 저소득층 학생에게 83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였음에도 급식비 미납자가 증가한 이유는 시중 은행과 스쿨뱅킹 등의 자동납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통장잔액이 부족하거나 보호자의 납부의식 결여,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한 신빈곤층의 증가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급식비 미납에 대한 향후 대책은 미납자가 2009년도에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현재 2,855만원을 추가 납부하였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의 경우는 각급 학교에 설치된 급식비 지원창구를 통해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229회-제3차 본회의]

다음은 단기방학 실시의 문제점 및 대책과 도교육청의 향후 지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방학은 가족 간의 유대증진과 효도와 관련된 체험활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휴가의 질적 개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휴업일을 운영하고 있으나 맞벌이 가정의 자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미흡함에 따라 일부 학생들이 교육적 돌봄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맞벌이 부부 및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자녀를 위한 체육관, 도서관, 컴퓨터실 등 학교 시설을 개방함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개설 및 대책 수립을 전제로 단기방학을 실시하되, 기간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소화하도록 하고 학사 일정 및 단기방학 프로그램을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사전에 학부모님들에게 미리 안내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원통학차량 안전운행과 관련한 행정지도 실적과 향후 지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버스 안전운행과 관련한 지도는

2009년 3월 31일 학원 건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2009년 4월 15일 학원 담당공무원 회의를 통하여 차량 승하차 안전지도 및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권장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 5월1일 현재 도내 사설학원에서 운행 중인 차량은 1,472대이며, 그 중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은 87대로 전체차량의 5.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가차량에 한하여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시 동승자 탑승 및 경광등 부착 등 의무 부담을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학원장 연수나 지도점검 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수강생 안전지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휴대폰 소지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에서 규제방침이나 사용지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기초 2009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중등교육과에 발송한 공문에 의하여 각급 학교별로 학생들의 건전한 휴대폰 사용 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휴대폰 사용 예절교육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에 요구

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생활규정에 휴대폰 사용 규정의 제정 목적, 교내에서 휴대폰의 소지 가능 여부, 교내에서의 휴대폰 사용시간, 그 다음에 휴대폰 보관 장소 및 보관 방법 지정, 휴대폰 사용 규정 위반 시 처리 기준 등의 내용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걱정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우 교육위원님의 질의 내용입니다.

김병우 위원님께서서는 교육 관련 민간단체 지원 의향과 BTL사업의 문제점, 지방공무원 정원감축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교육 관련 민간단체 지원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민간단체에 대한 재

정지원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교육감이 조성 또는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민간단체의 성격, 사업의 목적과 내용, 예산집행 계획 등에 대한 사업담당부서의 검토조정을 거쳐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재정지원을 요구한 단재문화예술제전추진위원회의 단재문화예술제전 행사는 단재의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문화 예술 행사로 교육발전 공헌자에 대한 단재교육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고 단재 신채호 선생을 바람직한 교육자의 사표로 삼고 있는 우리 교육청으로써 사업의 목적과 기본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또한 청주시 산남동 원흥이 지구 내 두꺼비 생태문화관의 생태체험 교육은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에게 생태환경 보전과 자연을 존중하는 가치관 함양에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며 건강한 시민문화를 확산하는 바람직한 환경운동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특별회계에서의 민간단체 재정지원 여부는 학생교육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최우선을 두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사단법인 남북누리나눔의 중·고생 평화리더십 캠프 사업은 청소년들의 평화의

[제229회-제3차 본회의]

식 함양과 리더십 향상을 위하여 도내 초·중·고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한 1박 2일간의 분단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9년도에 우수 통일 안보체험학습 프로그램의 발굴 및 지원을 통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를 거쳐 초·중·고 20개교를 선정하여 1,580명의 학생들에게 통일안보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서도 유사한 안보현장체험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내용의 중복, 예산 지원의 타당성 등에 대한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정지원을 요구한 3개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단체의 성격과 주요사업, 프로그램 내용, 민간단체 재정지원의 형평성, 2010년 교육재정 여건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BTL사업과 관련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건축물의 관리상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신설학교 13개교, 학교 이전 1개교, 증·개축 1개교, 다목적교실 39교 등 총 54개교를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시설하였으며 현재 15교의 임대형 민자사업을 6개 사업 시행자가 관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학교 건물은 시공 시부터 실시 협약에 따라 전면 책임감리제를 도입하여 시공함으로써 중대한 하자 발생 등의 문제는 없으며 매분기 대상 학교별로 운영사항을 성과 평가하여 경미한 하자는 즉시 보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대형 민자사업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서상의 시행지침에 따라 적격성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주무 관청이 지정하는 전문 조사기관에 조사 용역을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사업인 산남고 등 6개교는 사단법인 한국교육환경연구원에서, 2006년도 사업인 청주성신학교 등 24개교는 사단법인 한국교육시설학회에서, 2007년도 사업인 서현초 등 24개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적격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6개 사업 번들별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은 주무 관청과 시설이용자 측이 4 내지 6명으로 57% 내지 66.7%를 차지하고 사업시행자 측은 3명으로 33.3% 내지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 관청과 시설이용자 측 위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각 사업 번들별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금융위기에 따른 사업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 임대형 민자사업 참여 사업시행사와는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금융기관과의 대출 약정이 체결되어 자금 조달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이후 신규사업 중단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을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 또는 재정사업으로의 선택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과 우리 교육청의 가용 재원 규모, 정책적 판단 등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 2008년도 이후 원리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학교 신설을 제외한 다목적 교실 등의 임대형 민자사업은 원리금 재원을 우리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농산촌 소규모 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청주시 등 도시학교는 부지 협소로, BTL사업 규모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BTL사업으로의 추진은 지양하고 있으나 향후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등의 재원을 확보하여 자체 재원으로 다목적교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운영상의 애로 등 사업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 임대형 민자사업 학교 건물은 신축된 지 불과 1 내지 3년 정도만 경과되어 구조적인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고 민간경영기법을 활용

한 서비스 제공으로 임대형 민자사업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의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는 등 현재까지는 별다른 애로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문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감축 계획 수립 시 정년퇴임 등 자연감소 인원을 대상으로 하되 기관별로 업무량이 적은 기관은 감축하고 신설되거나 학급수, 학생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기관은 증원하였으며 직종별로는 행정업무의 전산화, 시설의 현대화, 당직 등 용역 실시로 업무량이 증가된 일반직은 감축폭을 줄이고 업무량이 감소된 기능직은 감축폭을 확대하여 일반직 36명, 기능직 116명을 감축하였습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기능직 비율 과다에 따른 교육청의 인력 구조상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원감축에 따른 각 기관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조정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원감축에 따른 과원 해소를 위해 타 시·도 교류 희망자를 조사하여 전출하였으며 육아휴직 공무원의 증가로 발생한 결원을 보충해 줌으로써 금년도에 과원이 모두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은 2009년도

[제229회-제3차 본회의]

하반기 이후에 신규채용 계획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퇴직자를 감안하여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지역별로 퇴직 인원과 감축 인원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동일 시·군 내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충 해소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연고지 근무는 계속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감축 인원과 퇴직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 본청 및 시·군 교육청을 대상으로 희망지를 조사하여 전보하거나 조무에서 사무로, 사무에서 조무로 전직할 경우 희망지를 조사하여 인근 시·군 교육청으로 전보하는 등 가능한 거주지 기준으로 최단 거리의 인근 시·군 교육청으로 전보할 계획이며 부득이 타 시·군 교육청으로 전보된 자의 경우 연고지에 결원이 발생할 시 우선적으로 연고지에 전보 조치하는 등 정원 감축으로 인한 인력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수웅 교육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촌 연중 돌봄 학교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사업은 농촌 지역 학교의 특색과 학생의 필요를 충족

시키는 프로그램을 학교 자율로 추진하며, 면지역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으로 학생의 이탈방지 및 도·농간 교육격차 완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프로그램은 학습지원, 문화체험지원, 사회성지원, 기초안전망지원, 심리정서지원, 기타 지원 등 6개 영역으로 운영하며, 기초 학습부진 학생을 위해 학습지원에 38%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사전에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 신규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사업학교에 대한 교장 및 담당자 연수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험은 농산어촌 학생들의 잠재적 역량을 계발하고 교육과정 내용과 연계한 문화체험 활동으로 현장체험학습뿐 아니라 태권도, 바이올린, 피아노 등 특기적성교육, 음악회행사, 도자기체험, 전통음식만들기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문화체험이 사치성이나 낭비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학교의 선정은 면 지역의 높은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조손가정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공모를 통해 우리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부에 신청, 우리 도는 8개군 44개교가 지정되어 3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내 전지역에 걸쳐 실질적인 대상학교나 학생을 골라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하여는 연말에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영용 교육위원님의 질의 답변입니다.

성영용 위원님께서서는 각급 학교 방화관리자 선임 문제, 행정실장 관련 규칙제정의향, BTL사업과 관련한 개선방안 그리고 초등학교 학구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방화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의하면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은 교장, 교감, 교사로 한정되어 있어 단위학교 행정실장이 교사와 학생에게 감독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서의 감독적 직위란 공공기관의 건축물, 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에 대한 감독적

직위로 단위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교육시설물을 관리 감독하도록 사무부장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관의 장이 소속 교직원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경우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는 기관의 장이 적정한 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관의 장이 자격을 취득한 교직원, 강습교육을 받은 교직원 또는 강습교육을 받을 교직원을 지정 선임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실장 보직 명칭 관련 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행정직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배치되며 그 직원 중 선임자를 행정실장이라고 하고 있으나 직위는 아닙니다.

규칙 또는 훈령으로 행정실장 호칭을 제정 사용하는 일부 시·교육청도 있으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행정실장 호칭에 대한 규칙이나 훈령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BTL사업의 문제점, 성과 평가의 공정성 문제, 개선방안에 관하여 답변드

[제229회-제3차 본회의]

리겠습니다.

산남고 등 일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학교건물의 누수와 내벽 일부분에 실금 균열이 있었으나 즉시 보수하였고 임대형 민자사업 건물은 시공 시 책임관리제를 통한 감독 철저로 건물 전체의 견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향후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보수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내구연한 내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매분기 적립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선 보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임대형 민자사업 건물의 경미한 하자는 시공사나 운영사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보수 조치하고 있고 매분기 정부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운영성과를 각 부문별로 사전 점검하고 있으나 건물을 신축한 지 1년 내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정부지급금을 감액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아직까지는 성과평가 결과의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2005년부터 2007년 임대형 민자사업 진행 시 기획재정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서 민간사업시행자를 포함하여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우리 교육청은 7 내지 9명으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의 교육청 측 위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시행자 측의 의견이 성과평가 결과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단되나 기획재정부에서 성과평가위원의 구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만큼 향후 사업시행자 측 구성비율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학구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 밀집지역의 신설 학교는 당초의 설립 규모보다 초과 유입되는 학생이 많아 특별교실을 전용하거나 교실을 증축하여 교육환경이 저해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정규모의 학교육성, 과대과밀 해소를 위한 학교구조정, 학교설립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아동이 자연 감소되어 과대과밀 학교가 상당수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근거리 학교간의 추첨에 의한 학교배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초등학교는 통학구역에 의거 의무취학이 이루어지게끔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하여야만 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동 사안은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법령개정 여부를 건의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무 교육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무 위원님께서 기숙형 공립학교 운영, 학교급별 다목적실 현황 및 신축 계획과 단설유치원의 급식소 신축 계획, BTL사업, 연립사택의 확충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기숙형 공립고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생 기숙사비 지원계획으로 기숙형 공립고 사업의 성패는 학생들의 기숙사 이용에 달려 있으며 학생 기숙사비 월 20만원 내지 25만원은 농촌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학부모의 과도한 부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치단체의 기숙사비 등 재정지원 유치를 위해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해당 학교별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진천군과 괴산군에서는 학생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예산지원을 농림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숙형 공립고의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학부모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증장기 학생수 감소와 관련한 운영 대책으로는 우리 도 기숙형 공립고

7개교의 기숙사 정원은 전체 학생 대비 22% 정도로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당초 기숙형 공립고 시설계획을 할 때부터 2020년까지 장기 수용계획을 감안하여 계획하였기 때문에 증장기적으로 학생수가 감소되더라도 기숙사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학생수 감소로 기숙사 입사 학생이 적을 경우에 대비하여 기숙사 일부 시설을 교육시설로 개조가 가능하도록 설계 반영하여 건축하는 등 수요를 예측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숙사의 안정적 운영은 학생 기숙사비 부담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자치단체나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재정지원이 된다면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재정 효율성 확보 방안에 관하여서는 기숙형 공립고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도입, 학생 기숙사비 부담 완화, 우수 교직원 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숙형 공립고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호 협력해야 할 과제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일정 부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

[제229회-제3차 본회의]

역 거점 우수교인 기숙형 공립고를 통해 지역의 인재 및 인구 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일정 부문 이익이 돌아가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해 재정여건을 감안한 기숙사 운영비 지원을 검토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기숙형 공립고가 장기적으로 운영될 것을 감안하여 기숙사를 이용하는 수혜자인 학생도 소득계층에 따라 일정액의 기숙사비는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기숙형 고등학교의 사립학교 확대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1단계인 지난 2008년도에 농촌인 군 지역 일반계 공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2009년도 2단계 사업은 사립학교와 도·농복합 시 지역, 충북의 경우 충주, 제천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과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학교수 등은 결정된 것이 없고 2009년 6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교급별 다목적실 현황 및 신축 계획과 단설유치원 급식소 신축 계획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함께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통하여 꾸준히 다목적교실을 확충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교실 보유 현황은 초등학교 255교 중 45.5%인 116교, 중학교 129교 중 56.6%인 73교, 고등학교는 80교 중 73.8%인 59교, 특수학교 9교 중 33.3%인 3개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473교 중 53.1%인 251교가 다목적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 보유된 학교는 주로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청주시 등 도시지역의 부지협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 미흡으로 인한 것이나 학교의 지역 시설 여건, 자치단체의 대응투자 지원이 되는 학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단설유치원 11개원 중 식당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7개원이며 미보유 유치원은 남성유치원, 서원유치원, 비봉유치원, 대소유치원 등 4개원입니다.

유치원 급식소 설치의 자체 조리 및 운반급식으로 인한 급식단가 인상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유치원장이 급식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요구가 있는 경우에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을 BTL사업보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BTL사업의 총규모, 상환 액수, BTL사업의 장단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신설 등 일시에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투자하기 힘든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을 단기에 시설하여 동 시대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효과가 큼니다.

그러나 임대형 민자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임대료를 20년간 상환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재정이 소요되는 점도 있으므로 학교시설을 임대형 민자사업방식 또는 재정사업방식에서의 선택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 우리 교육청의 가용재원 규모와 정책적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한 임대형 민자사업은 학교신설 13개교, 학교이전 및 증·개축 2개교, 다목적교실 39교 등 총 54개교로 사업비는 1,655억 1,000만원이고 20

년간 총 상환 예정액은 3,883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간 상환액은 2007년도에는 산남고 등 5개교에 22억 3,000만원, 2008년도에는 산남고 등 49교에 98억 1,000만원을 상환하였고 2009년도에는 산남고 등 53개교에 177억 3,000만원을 상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첫째로 재정여건 상적기에 투자하기 어려운 시설을 리스방식을 통하여 동 시대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둘째로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함으로써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셋째로 민간의 창의적인 경영기법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시설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20년간 시설 투자비 상환 시 원리금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고 민간사업 시행자의 재무 건전성 악화 시 학교운영 관리에 차질이 우려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직원 연립사택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원거리 근무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연립사택 등 공동 관사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009년 4월 1일 현재 우리 교육청이

[제229회-제3차 본회의]

보유한 공동 관사는 건축 중인 3동 56세대를 포함하여 총 29동 273세대입니다.

금년부터 교직원 사택 관리를 위한 중장기 교직원 관사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노후되고 활용되지 않는 단독 관사는 연차적으로 철거하고, 공동관사 수요에 따라 5년간 12동 118세대를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옥천 지역에 원룸식 연립사택을 신축하는 제안의 말씀은 수요파악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걱정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집행청의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집행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모두 침묵)

보충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모든 질문을 마치고 교육행정예관한질문의견을 종결하겠습니다.

2일 동안.....

(의석에서 성영용 위원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 의장 걱정수

아니 지금 보충질의를 거수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의석에서 성영용 위원 “저는 원고를 넘겨줬는데”)

● 의장 걱정수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끝났잖아요.

보충질의는 서면질의로 하시죠.

(의석에서 성영용 위원 “예”)

● 의장 걱정수

2일 동안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청에서는 이번 교육행정질문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대안 그리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은 충북교육시책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스포츠클ubs의 축제인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전남에서 개최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땀방울 흘리며 훈련에 임하고 있을 선수들과 선수지도에 최

선을 다하고 있을 지도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제2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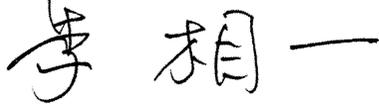
의장곽정수, 부의장김부웅,
위원김병우, 서수웅, 성영웅,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우승구, 교육국장전재원,
기획관리국장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황익상, 학교정책과장홍순규,
초등교육과장윤병준, 중등교육과장이수철, 체육보건급식과장이중찬,
총무과장서재문, 기획관리과장홍준기, 행정예산과장윤기성,
재무과장박노화, 시설과장안세열.

제2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9. 5.

의 장	곽 정 수	
위 원	이 상 일	
위 원	정 무	
의사국장	구 명 회	

(별첨 1)

의 사 일 정 (안)

제2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09. 5. 20. ~ 5. 22.(3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5월 20일(수)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2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9. 5. 20. ~ 5. 22. (3일간) 2.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9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input type="checkbox"/> 산 회	제안설명 제안설명
5월 21일(목) 10:00	[제2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5월 22일(금) 10:30	[제3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집행정답변)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의 결

(별첨 2)

의안번호	제 / 호
의결 연월일	2009년 5월 일 (제229회)

2009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9년 5월 일

2009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29-1
----------	-------

제출연월일 : 2009. 5.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취득

(단위 : m², 천원)

구분	기관명	사업명	수량	금액
토지	본청(재무과)	본청청사부지추가확보	6,093	2,129,343

제안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대상 : 20억원(토지 6,000m²) 이상 재산 취득시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
 -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안을 작성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붙임 : 배치도면 1부.

2009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2009년상반기			2009년하반기			합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취득합계	1	6,093	2,129,343				1	6,093	2,129,343	
	계	토지	1	6,093	2,129,343				1	6,093	2,129,343
		건물									
		기타									
	1. 매입	토지	1	6,093	2,129,343				1	6,093	2,129,343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처분합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토지									
		건물									
기타											

2.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 : m², 천원)

재 산 의 표 시				추정금액	취득 시기	취 득 사유	취 득 소유자	비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량					
본청 (재무과)	토지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외 6필지	6,093	2,129,343	상반기	본청 청사 부지 추가 확보	교육감	(도면1)

※ 예산 확보 현황

구분	면적	기정예산액	예산집행액	잔액 (부족액)	비고
제1회추경	4,159	1,871,550	1,429,343	442,207	6필지
금회 추가매입	1,934		700,000	-700,000	1필지
계	6,093	1,871,550	2,129,343	-257,793	-257,793

○ 부족예산액 확보방안

- 당초 확보된 토지매입비중 부동산가격 변동 등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충당

도면1) 본청 청사 증축 부지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유
청사부지	청주시 홍덕구 산남동	4-2	답	1,150	400,550	본청 청사 증축 부지 추가 확보로 민원인 편의주차장 시설 확대 (향후, 교육정보원 설립예정 부지로 검토중)
		4-5	전	611	208,962	
		4-9	답	499	169,909	
		4-10	답	347	119,654	
		4-16	전	344	117,132	
		4-21	답	1,208	413,136	
		소계				4,159
합계		4-1	답	1,934	700,000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843평)

